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

Social Competence, Peer Contacts,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of Lower SES Employed Mothers

최 경 순*

Choi, Kyung Soon

정 현 희**

Jeong, Hyeon 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ocial competence, peer contacts,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of lower SES employed mothers. Instruments were Choi's (1992) questionnaire on social competence, Pettit's (1988) questionnaire on peer contacts, and Kang's (1986) and Kim's (1993) questionnaires on emotional development.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

Social class differences were found in children's social capability, leadership and anxiety, in peer contacts, and in emotional disturbance and aggression.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대다수는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문제를 들고 있다(이정숙, 1994; 한명희, 1991; 최경순, 1995).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양육 대행 비용 부담이 어려워, 아동

을 방치하거나 준방치 상태로 두게 된다(강문희, 1990). 이는 아동의 성장에 지장을 줄 요소를 다분히 내포할 수 있고, 아동발달상의 문제는 빈곤의 세대 전이 현상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업모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고, 취업모의 학령전 아동의 탁아와 마찬가지로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생활지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영유아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다양한 사회적 대책들이 강구되어 왔지만, 학동기 저학년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사

*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회적 관심과 복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동기 저학년 아동도 유아들처럼 성인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며, 실제로 어머니들도 아동이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연령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정현희와 최경순, 1996). 학동기 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의 실체는 거의 대부분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려의 소리가 높은 학교폭력에 취업모의 학동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또는 일정한 지도 프로그램없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95년 11월에서 96년 2월사이의 학교폭력중 초등학생 피해 비율이 17.63%나 되며, 폭력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 오락실, 만화방 등이고, 범행 시간이 대부분 방과후 시간임(김정자, 1996 재인용)을 고려할 때 학동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환경 조성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학동기는 학교에서의 학업수행과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적절한 환경 결핍은 이후 아동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정의 낮은 수입은 아동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충족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물리적 자극과 동기부여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부모에게 주는 심리적 긴장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oyd, 1992).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외국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자기보호 아동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고,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지도와 통제의 결핍으로 또래의 압력이나 불량 환경에의 노출이 용이해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Bell, 1991; Osofsky, Wewers, Hann, & Frick, 1991). 학업성취와 언어수행 능력이 낮으며(Woods, 1972), 이는 후의 학업중단과 상관성이 높다(Baydar, Brooks-Gunn, 1991). 또 위험한 장난이 빈번하며, 안전에 대한 소홀로 신체에 대한 상해나, 유괴, 성폭행 등의 사건들에 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이같은 외국 연구들을 미루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들도 불리한 생활 환경에서 자라므로 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가족 보편화, 아파트 형태의 주거문화 일반화로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아동이 늘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없는 시간대의 정서적 소외감은 물론 가스나 전기 등의 작동 잘못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의 노출, 방문 판매를 가장한 절도, 강도, 성폭력 등 나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피해는 심각하고도 다양할 수 있다(김정자, 1996).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문제 외에 가난의 문제도 갖게 된다. 가난은 아동에게 직접 필요한 환경 구성에 제약을 가져와 아동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동의 행동과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의 세대 전이 가능성을 높인다(최일섭,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불리한 환경의 아동들에 대한 안전과 사회적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에게 문제가 된다고 외국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산만,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들의 발달상의 문제를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리한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 지도 대책의 방향 모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또래관계는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또래관계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정서발달(산만, 공격성)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정서발달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의 배경 및 관련 연구

1. 자기보호 아동

자기보호 아동이란 정기적으로 혼자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이 아동들은 부모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3, 4세 아동에서부터 방과후 빈 집에 혼자있는 학동기 아동, 또는 부모들이 출장 등으로 상당 기간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혼자 있는 15,16세 아동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 동생까지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느낀다(Long & Long,

1983).

학동기는 유아기에 비하여 비교적 부모나 사회의 관심을 덜 받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어머니의 취업 증가로 적지않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없이 하루의 3-7시간을 자기보호 아동으로 보내야 한다(한국어린이보호회, 1992).

한국어린이보호회(1992)가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아동의 1/3이 성인의 보호없이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옥(1993)의 보고에서는 취업모의 저학년 자녀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자기보호 아동이다. 학동기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한명희(1991), 한국어린이 보호회(1992) 등의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이 밝힌 자기보호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은 주로 친구집에 놀러 가거나 놀이터에서 지내는 것, 혼자 또는 동생과 잠자거나 집안 일을 하는 것, 숙제와 TV시청, 과외학습, 학원수강 등이다. 그리고 이런 아동중 상당수는 어린 동생까지 돌보아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Long & Long, 1982). 자기보호 아동을 둔 취업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불량 환경,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최경순, 1995).

우리나라의 경우 학동기 자기보호 아동이 발생되는 요인은 첫째,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모는 가계유지의 수단으로 취업에 종사하며, 거의 단순 노동에 의한 수입에 의존함으로 대리양육자를 들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아동들은 학교에 너무 일찍 등교하거나 방과후에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도시화와 자녀수의 감소, 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도시의 생활은 다른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핵가족화로 맞벌이 가정은 과거 확대가족에서 제공받던 친족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었다(유영주, 1993). 변화순(1988), 최경순(1995)의 보고에 따르면 반수 이상의 취업모가 자녀를 혼자 집에 놔두거나 형제 또는 친구와 놀게 한다고 하였고,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자녀를 방치, 혹은 준방치 상태로 둔다고 하였다. 이같이 핵가족의 보편화는 가족 내에서 학동기 아동의 보호 및 지도를 맡아줄 인적 자원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이 처음으로 집에 혼자있게 되는 연령은 McMurry와 Kazanjian(1982)의 연구에서 9.8세로 나타났고, 여아보다 남아를 더 어린 시기(남아:8.7세, 여아:10.0세)에 자기 보호 상태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기보호 가능 연령은 초등학교 4-6학년이라는 의견이 60% 정도이며, 초등학교 아동에게는 자기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23% 정도이다(한명희, 1991). 그리고 교사들은 방과후 탁아에서 저소득층 아동은 40%, 중류층 아동은 4%가 방과후 탁아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부모들은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24%, 중류층 부모의 15%가 방과후 탁아가 필요하다고 했다(한순옥, 1996).

2.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문제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문제는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구가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미비하나마 국외의 연구에서 저소득층과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문제로 연구된 분야는 대개 저소득층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 분야이다. 먼저 저소득층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취업모 여성은 대부분이 필요에 따라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임금이 그 특징이다. 저소득층은 주거 및 양육 환경이 좋지 않고

(Bradley, 1985),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환경 자극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해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Luster & Rhoades, 1989). 예컨대 빈곤으로 인한 주거의 과밀 상태가 아동의 행동을 제약하여 아동을 무기력하게 하며(Baum, Aiello, & Calesnick, 1978), 결단력도 부족하고 폐쇄적, 공격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옥, 1995). 또한 빈곤으로 인하여 부모의 갈등 심화, 심리적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낮은 자아감은 자녀에 대한 영양 관리 및 교육을 등한하기 쉽게 하며, 자녀의 사회적 측면을 지원해 줄만한 여건이 결여되어 있어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지장을 가져와 아동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최경순, 1995; Hofferth, 1987).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나 공격적 행동, 위축 행동 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Rubin & Lollis, 1988), 부모가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지닐 때 사회적 역량이 증가되었다(Kaplan & Cassidy, 1985). 그런데 저소득층의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층보다 더 체벌지향적이며, 더 권력중심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Phillips, Voran, Kisker & Howes, 1994). 따라서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활동 공간의 부족은 형제간의 갈등을 높이고(Swift, 1964), 이러한 조건들이 반사회적 공격 행동을 조장한다(Baum, et al., 1978). 그리고, 성인 보호 아동에 비해 학업 성취나 언어 능력(Woods, 1972),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도와 사회적 능력이 낮고(Galambos & Garbarino, 1985; Haveman, Wolfe, Spaulding, 1991; Vandell & Ramanan, 1991), 문제 행동을 보여 사회적 적응과 학교 적응에도 지장을 초래한다(Galambos & Garbarino, 1985).

자기보호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있어 또래와의 접촉은 부모의 영향과는 별개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하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좋은 또래관계의 유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아동들은 후에 심각한 적응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Parker & Asher, 1987).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주의와 경계는 아동들에게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주며(Long & Long, 1982)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집 밖에서 노는데 제약을 받음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결핍(Long & Long, 1982)되게 한다. 학동기 아동들은 또래들을 통하여 평등주의적 관계를 배우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독립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래간 유대를 통해 집단에의 소속감, 성역할, 신뢰감을 발달시킨다. 만일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배척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배척아는 결국 공격적, 호전적으로 되기 쉽고, 거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회피하기도 한다(김현경, 1994). 그리고 불량 환경이나 또래 압력에의 노출이 용이해 반사회적 행동도 발생하며, 종종 마약, 절도, 강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Phillips, Voran, Kisker, & Howes, 1994).

한편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은 부모, 혹은 성인의 실제적인 감독 및 통제없이 스스로 돌보게 됨으로써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부모부재에 따른 정서적 불안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모와의 실제적 대화 시간이 부족할 뿐아니라 애정 결핍, 정서적 불안정, 건강과 안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Halpern, 1992). 또한 성인 보호 아동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갖고 있고,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아동을 보

호하려는 부모들의 주의와 경계는 아동들에게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주며, 이것은 아동에게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서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Coleman, Robinson, Rowland & Price, 1984; Halpern, 1992; Long & Long, 1982). 그리고 정서적 불안은 사회적 지식 및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Putallaz & Gottman, 1981).

물론 위에서와 같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기보호 아동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자신감, 독립심이 더 높다는 긍정적 측면의 연구(Harris, 1981)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층 아동들은 가난과 자기보호의 이중적 부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행동상의 문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부적응의 기간이 길수록 발달상의 결함이 누적되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있는 성인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과후 대책이다. 그리고 학동기는 신체적 활동과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면서 학교에서의 학습과제 수행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모든 교육적 활동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Todd, Albrecht, & Coleman, 199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발달 특성과 방과 후 아동 지도를 고려한 아동 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는 시기로서 발달특성은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며,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 지도, 숙제 지도, 자율 학습 지도, 특별 활동(과학 탐구, 글씨, 창의성 개발, 사고력, 음악, 미술 등)의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방과후 아동 지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방과후 위험에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는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지도의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김재인, 1996). 즉 아동 안전, 학교교육의 보완,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 신체적 건강, 기본생활 교육, 또래집단 과 올바른 관계 형성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방과후 아동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 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 특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 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류층의 분류 기준은 통일 된 지표가 없다. 저소득층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론적으로 여러 계층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단일 지표의 사용보다 계층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려되나, 여러 지표중 어느 지표에 더 가중 치를 두느냐의 결정이 어렵고(오선영과 이숙, 1993), 연구들마다 계층의 지표 기준이 소득(윤 정혜와 이기춘, 1994), 거주지(이순형, 신양재와 김영주, 1991), 직업(오선영과 이숙, 1993)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 분류에 있어 우선 적으로 거주지를 고려하며, 저소득층 거주라도 자 기보호 아동의 아버지 직업이 자영이나 사무직이 면서 고졸이나 대졸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류층으로, 중류층 거주지에서 이와 반대의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소득 100 만원 기준은 선행 연구(오선영과 이숙, 1993; 이 순형외 2인, 1992; 윤정혜와 이기춘, 1994)에서 의 저소득층 소득 기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 류층 취업모 가정의 아동은 방과후 가정에 돌보 는 이가 있거나, 돌보는 이가 없는 경우 학원 등 에서 지도를 받고 있음이 대부분으로 중류층의

경우 자기보호 아동의 수는 많지 않다(이영, 지혜 련과 문수재, 1986; 최경순과 정현희, 1994; 정 현희와 최경순,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저 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류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 를 임의 표집하여 각 학교의 3학년 아동 972명 에게 질문지를 배포, 그들의 어머니가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대상에 맞는 (연 구의 배경 및 연구 참조)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 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어머니가 답한 질문지 418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 다.

회수된 질문지 965부 가운데 비취업모를 제외 하고 1주일에 3일 이상 가정 밖에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 418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저소득층 자기 보호 아동이 214명, 중류층 취업모 아동이 204 명이다.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아버지 학력은 중졸이하가 98명(54.4%), 고졸이 83명(45.8%) 이고,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아버지 학력은 고졸 128명(57.2%), 전문대 이상 62명(27.7%)이다.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 하가 143명(80.8%), 고졸이 35명(19.1%)이며,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가 33명(16.7%), 고졸이 113명(55.2%), 전문대이 상이 54명(26.6%)이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아버지는 무직·단순·피고용직이 71명(34.8%), 자영 32명(15.7%), 사무직 61명(29.9%)이며,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아버지는 자영 84명(41.1%), 사무직 82명(40.2%), 전문직 38명(18.7%)이다.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 가정의 가계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12명(99.1%)이며, 중류층 취업모 아동 가정의 가계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이 186명(96.9%)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1) 사회적 능력 측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정은 Pease, Clark와 Crase(1979)의 사회적 능력 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s:School Form)를 우리나라 문화에 알맞게 개작하여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개념화한 최경순(1992)의 초등학교 아동용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식이고, 어머니 평정용이며, 하위 변인은 유능성·지도력·불안정성·부모에 대한 애정 네 범주로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각 하위 변인의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유능성 .74, 지도력 .76, 불안정성 .72, 부모에 대한 애정 .68이었다.

2) 또래관계 측정

또래관계 측정은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지, 다른 아동들로부터 수용 혹은 배척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ttitt, Dodge와 Brown(1988)이 제작한 질문지를 연구자들이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식이고, 교사 평정용이며, Cronbach α 는 .84이다.

3) 아동의 정서발달 측정

정서적 행동의 측정도구는 Achenbach와 Quay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김혜련(1993)과 강계순(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평정용이고, 정서적 부적응 행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 하위요인은 공격, 산만, 불안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의 정서발달을 측정하였다. 정서발달의 하위 요인중 불안은 사회적 능력의 불안정성과 유사한 변인이고, 두 변인간의 상관이 .62($p < .01$)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과 산만에 대한 정서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Cronbach α 는 공격 .74, 산만 .65 이었다. 5점 리커트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1995년 6월 1주부터 6월 3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들이 부산 시내에 있는 2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학교 선정은 중류계층과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가정에 전달하고, 응답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또래관계는 담임선생님이 직접 평정하도록 부탁하였고, 아동의 정서발달 질문지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418부의 자료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t검증 등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수준은 $\alpha=.05$ 로 하였으며,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산만, 공격성)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 비교

〈표 1〉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

사회적 능력	저소득층		중류층		t
	M	SD	M	SD	
유능성	3.26	.64	3.51	.60	3.49***
지도력	2.97	.74	3.21	.63	3.27***
부모애정	3.12	.89	3.26	.84	1.49
불안정성	3.21	.69	2.95	.63	3.29***

***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 중 유능성($t=3.49, p<.001$), 지도력($t=3.27, p<.001$), 불안정성($t=3.29, p<.001$) 변인에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유능성, 지도력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불안정성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표 2〉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또래관계 차이

	저소득층		중류층		t
	M	SD	M	SD	
또래관계	3.58	.78	3.85	.74	3.39***

*** $p<.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또래관계 비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중류층 취업모 아동보다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이 또래관계의 평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은 학교와 가정에 고립되며, 또래관계에 지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Halpern, 1992)를 보여주고 있다.

3.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정서발달 비교

〈표 3〉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정서발달 차이

정서 발달	저소득층		중류층		t
	M	SD	M	SD	
산만	2.01	.88	1.84	.84	1.98*
공격	2.38	1.13	2.15	1.02	1.97*

* $p<.05$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정서발달 비교에서는 정서발달의 하위변인중 산만과 공격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 아동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산만성,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은 중류층 아동에 비해 정서적 부적응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을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정서발달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사회적 능력 비교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중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유능성과 지도력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정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Vandell과 Ramanan(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데,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물리적으로 부족한 환경, 또래와의 심리적 고립 등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여겨진다. 즉 유능성과 지도력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능력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는데(최경순, 1992; Maccoby & Martin, 1983),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경우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부모에 대한 애정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현희와 최경순(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대화의 시간에서 취업모 아동의 계층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질적 측면이 중요하나, 양적인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부모는 계층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이숙, 1988)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불안정성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은 자기보호 아동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 아동이 훨씬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주의와 경계가 아동들에게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주어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Coleman, Robinson, Rowland & Price, 1984; Halpern, 1992; Long & Long, 1982)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간에는 또래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보다 또래관계가 낮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가진 아동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증하며(김현경, 1994; Hartup, 1983), 또래집단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린 아동의 또래 교제는 부모의 격려나 권장,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은 부족한 물리적 환경 외에 부모부재로 인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부족하게 되므로 또래관계에 부

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째,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과 중류층 취업모 아동의 정서발달 비교에서는 정서발달의 하위변인중 산만과 공격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산만성과 공격성이 높았다.

공격성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 억압된 적개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경우 돌보아 줄 성인이 부재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렵고, 혼자 있음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부모의 주의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불만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많을 수 있다.

한편, 아동은 어머니와의 원만한 관계에서 적절한 발달을 이루어 나가므로 어머니가 바빠서 안정된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아동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되며, 초조, 불안울 느껴 산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신연식, 1990). 저소득층 취업모 노동의 특징은 대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동기도 자아실현의 개인적 동기라기 보다는 가계 유지를 위해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취업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모성에 대한 책임을 구태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유안진, 1989). 한편 아동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돌보아 줄 성인이 집에 없음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없다. 그리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하고 산만하게 될 수 있다(신연식, 1990).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이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산만성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

동은 중류층 취업모 아동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낮고, 또래관계가 좋지 않으며, 정서적 부적응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방과후 아동이 혼자 집에 있음으로 해서 위험과 외로움, 거리 배회와 탈선의 가능성이 위와 같은 결과에서 시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의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중류층 취업모 가정의 아동 중에는 방과후 가정에 돌보는 이가 있거나, 돌보는 이가 없는 경우 학원 등에서 지도를 받고 있어 자기보호 아동의 수가 적었고, 선행연구(정현희와 최경순, 1996)에서도 중류층 취업모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중류층에도 자기보호 아동이 존재하며, 이 아동들에 대한 연구도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리라 고 본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학동기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생활관리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과후 아동 지도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방과후 아동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계순(1986). 사회적 책임과 불안이 아동의 친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문희(1990). 여성의 사회진출과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제 3회 세미나.

- 경제기획원(1976,1987-1989). 경제활동 연구연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김재인(1995).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연구, 46,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1996).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숙명여대 아동연구 10, 107-152.
- 김정자(1996). 방과후 아동지도의 과제와 전망. 숙명여대 아동연구 10, 1-12.
- 김현경(1994). 배척아의 또래관계 향상에 관한 연구. 기전여전 논문집.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89).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3). 한국여성개발원.
- 신연식(1990). 어린이의 이해와 지도. 학문사.
- 오선영, 이숙(1993).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위탁실태 및 탁아서비스 실태에 관한 요구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2).
- 유안진(1985). 유아환경론. 창지사.
- 유영주(1993).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정혜, 이기춘(1994). 도시 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 대한가정학회지, 32(3).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1991). 빈곤가정의 환경 지각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2(1).
- 이영, 문수재, 지혜련(1986). 한국취업모의 자녀 양육현황과 문제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 옥(1991). 빈곤층 지역사회 계발을 위한 지역사회 탁아소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양옥승(편), 탁아연구(97-120), 서울:양서원.
- 이 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계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옥승(편), 탁아연구 2. 7-32. 서울:양서원.
- 이 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1), 3-18.
- 이정숙(1994). 취업모가 원하는 방과후 탁아, 논문집, 기전여전.
- 조선일보(1993). 4월 6일.
- 정현희와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4(2), 379-390.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1994). 영유아의 보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2(1), 75-91.
- 최경순(1995). 저소득층의 아동양육 및 부모자녀 간활동. 부산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3. 34-49.
- 최일섭(199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삼성복지재단.
- 한국어린이보호회(1992). 국민학교 어린이의 방과후 생활 실태조사. 샘물, 29, 6-7.
- 한국여성개발원(1995). 통계연보.
- 한명희(199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순옥(1996).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Baum, A., Aiello, R. & Calesnick, L. E.

- (1978). Crowding and personal control: social density and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000-1011.
- Baydar, N. & Brooks-Gunn, J.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care arrangements in infancy on preschooler's cognition and behavioral outcomes: Evidence from the children of the NLSY.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932-945.
- Bell, C. (1991). Traumatic stress and children in danger.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175-188.
- Bradley, R. H. (1985). The home inventory: Rationale and research. In J. Lachtenmeyer & M. Gibbs (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1991-2001.
- Coleman, M., Robinson, B. E., Rowland, B. H., & Price, S. (1984). *Families with latchkey children*. San Francisco.
- Duncan, G. J., Brooks-Gunn, J., Klebanov, P. K.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9.
-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Child & Youth Quarterly*, 18, 131-140.
- Halpern, R. ((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 (3), 215-230.
- Harris, L. (1981). Families at work: strengths and strains, Minneapolis, MN: The general Mills American family report.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hips. In P. H. Mus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 Y.: John Wiley & Sons.
- Haveman, R. Wolfe, B. Spaulding, J. (1991). Childhood events and circumstances influencing high school completion. *Demography*, 28, 133-157.
- Hofferth, S. (1987). *The children of teen childbearers*. In S. L. Hayes & Hofferth C. D. (Eds). Risking the future: Adolescent sexuality, pregnancy and childbearing, 174-206.
- Kaplan, M. M.,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Child Development*, 50.
- Long, T. J., & Long, L. (1982). Latchkey children: The child's view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2-7.
- Luster, T. & Rhoades, K. (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
- Maccoby & Martin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

- 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Wiley.
- Mcloyd, V. C. (1992). The impacts of economics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Murry, G. & Kazanjian, D. (1982). Day care and the working poor, *Journal Child & youth care quarterly, 18(2)*, 131-140.
- Osofsky, J. D., Wewers, S., Hann, D. M., Frick, A. G. (1991). Chronic community violence:What is happening to our children?.
- Parker, J. C.,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hillips, D. A., Voran, M. K., Kisker, E., & Howes, C. (1994). Child care for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65*, 472-492.
- Putallaz, M., & Gottman, J. M. (1981). Social skills and group acceptance. New York:Cambridge Univ. 116-149.
- Rubin, K. H., & Lollis, S. (1988).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J. Belsky(Ed.), Hillsdale, NJ: Erlbaum, 219-252.
- Swift, J. W. (1964). Effects of early group experience,the nursery school and day nursery. In M.Hoffman & I.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1.* NY:Russell Sage.
- Todd, C. M., Albrecht, K. M. & Coleman, M. (1990). School-age child care:a continuum of op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46-52.
- Vandell, D. L. & Ramanan, J. (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Choices in after school-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37-643.
- Woods, M. B. (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6*, 14-25.